황경환 이사장 “정지·정념으로 해탈을”

5월 24일, 불서 출간기념법회
전법 · 장학금에 10억2000만원
“불교 핵심은 결국 인식 전환”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황경환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은 5월 24일 경주 라한 셀렉트 컨벤션홀에서 불서 출간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전법과 교육을 위한 기금을 기탁했다.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한 재가불자의 원력이 자비로운 회향으로 꽃피웠다. 황경환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동국대 불교학부 석좌교수)은 5월 24일 경주 라한 셀렉트 컨벤션홀에서 불서 출간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전법과 교육을 위한 기금을 기탁했다.

이번 법회는 초기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정지(正知)’와 ‘정념(正念)’을 현대사회에 다시 전하고자 하는 전법의 실천이었다. 황 이사장은 자신의 삶과 수행의 정수를 담아 시집 〈正知, 正念 하면서 미련없는 작별을〉을 집필했고, 동시에 팔리어 문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전 해석의 기초를 다지고자 쇼바라니 다슈 원저를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번역으로 〈팔리어 문법 – 불전의 용례로 배운다〉로 출간하도록 전폭 지원했다.

행사 1부는 삼귀의례와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황 이사장이 동국대에 북한 출신 학생 불자 장학금 2000만원, 사단법인 21세기불교포럼 발전기금 10억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순서로 진행됐다.

황경환 이사장은 시집 출간의 의미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정지(正知)와 정념(正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화두”라고 밝히며 “이 시집은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죽음과 윤회, 업과 해탈에 대한 불교적 통찰을 담은 전법의 언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언젠가 이 몸을 버려야 하는 존재이며, 숨이 끊기는 찰나에 평소 말하고 행한 업이 다음 삶을 결정한다”며 “삶의 순간순간을 정지와 정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교 수행의 본질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며, 거짓을 진실로 오인하고 살아가는 무명(無明)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실천”이라며 “이 책이 그 첫걸음이자, 전법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황 이사장이 ‘정지(正知) 정념(正念)은 해탈열반으로 인도하는 원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정확한 앎과 정념이 우리 삶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강조하며, 시집 출간 역시 이를 현대의 전법 언어로 번역하려는 실천적 시도였음을 일깨웠다.

이어진 저녁 만찬 강연에서 황 이사장은 일상적이고 실존적인 화법으로 삶과 죽음, 인식의 전환을 주제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그는 “하루를 열심히 산다는 것은 곧 하루를 정념으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숨이 멎는 찰나에도 평소 말과 행위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씨앗이 된다는 윤회의 진리를 설파했다. 또한 정지와 정념은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밥을 먹고 말하고 걷는 일상에서 꾸준히 훈련될 때 비로소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할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쿠무다 부산명상협회 “파도 위 균형처럼 마음 중심 잡길”

5월 23일, 송정해수욕장서 개최
해운대중 3학년 200여 명 참가
‘서핑+명상’ 체험으로 정서 회복


쿠무다 부산명상협회와 부산서핑협회가 5월 23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5월 23일 청소년을 위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쿠무다 부산명상협회(가칭 BMA)와 부산서핑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해운대중 3학년 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핑과 명상을 접목한 ‘바다 위 명상 체험’으로,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자기 성찰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기획됐다. 오전에는 전문 강사의 지도로 서핑 체험이 진행됐으며, 백사장에서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함께하는 선명상 수련이 이어졌다.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은 곧 인생에서 균형을 잡는 수행”이라며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집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스님과 함께 “Who am I?”를 외치며 점차 분위기에 몰입해 갔다. 명상 자세를 따라하며 바닷소리에 귀 기울이던 학생들은 차츰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서핑하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명상 시간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명상 대중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BMA는 청소년을 비롯해 장애인, 직장인, 노년층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명상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현재 BMA는 부산시 산하 체육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8월 경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 5개 지부를 설립해 명상 대중화의 전국적 확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BMA는 △6월 동명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6월 28~29일 제2회 글로벌 명상문화페스티벌 개최(송정해수욕장) △7월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상 강의 △9월 27일 조계종 국제선명상대회와 연계한 ‘108배 경진대회 및 명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도심에 ‘명상 수행 허브’ 열린다

남천명상아카데미 개원
5월 24일, 개원식 봉행



불교 명상 수행과 교리 강의를 아우르는 도심 속 수행처 남천명상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

남천명상아카데미(원장 이숙희)는 5월 24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광재정형외과 건물(5층)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사진〉 개원식에서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가 법어를 전하며 개원을 증명했다.

남천명상아카데미는 명상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불교 입문 강좌, 위빠사나 집중수행, 청년 열린 법회 등을 운영하며 청년 불자 전법과 불교 명상 대중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개원을 기념해 5월 31일에는 BTN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이 명상치유법회를, 6월 14일에는 문광 스님, 28일에는 준한 스님이 각각 토요법회를 맡는다.

이숙희 원장은 “남천명상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성찰할 수 있는 따뜻한 배움터”라며 “불교가 종교를 넘어 마음의 기술이자 삶의 지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생각본과 바사나’로 만나는 내면 치유

한국불교상담학회, 5월 24일
‘내면 성장 · 치유’ 주제 워크숍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5월 24일 동국대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제2회 한국불교상담학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사)금강명상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내면 성장과 치유: 교류분석과 불교상담의 만남’을 주제로, 심리치료 이론인 ‘인생각본(Life Script)’과 불교 사상의 ‘바사나(Vāsanā)’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자리로 열렸다.

워크숍은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자아 탐색을 주제로 한 이론 강의가 진행됐고, ‘Free Child 난장판’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도 이어졌다. 오후에는 인생각본과 바사나에 대한 심화 강의와 함께 K-JPAQ 검사를 활용한 자기 점검, 감정 반응을 직면하는 실습 등이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연꽃문화제 대상에 오수연·박영은

5월 22일, 시상식 개최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회장 효산 스님)는 5월 22일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제41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꽃문화제에는 총 478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그리기 부문 439명, 글짓기 부문 39명이 응모한 가운데 총 80명이 수상했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그리기 부문에서 오수연(사하초 2학년), 글짓기 부문에서 박영은(부산교대부설초 3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사진〉

효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매년 훌륭한 작품들이 이어져 연꽃문화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어린이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